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1권 9편 섭리 ·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제1권 제16장 1-9절 (1절은 끝부분만 자료에 있음) · 생명의말씀사 세계기독교고전 『기독교강요』 상, 238-252쪽

?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운이나 우연, 자연법칙대로 굴러가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직접 챙기시는 걸까?

흐름 한눈에

칼빈은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손을 떼신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섭리는 운명이나 우연과 정반대입니다(2절). 하나님의 전능은 가만히 있는 능력이 아니라 늘 일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큰 틀만 정해 두지 않으십니다. 비 한 방울, 참새 한 마리, 사람의 발걸음, 제비뽑기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다스리십니다(3-7절). 이어서 칼빈은 “그럼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과 뭐가 다르냐”는 비난에 답합니다. 운명론은 기계적인 원인과 결과의 사슬을 말하고, 섭리는 지혜롭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8절).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어도 그 원인이 우리에게서 감추어져 있으니,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구분을 제시하고 마칩니다(9절).

절별 정리

1. 창조와 섭리 (자료에는 끝부분만 있음)

자료에는 1절의 마지막 몇 줄만 남아 있습니다. 칼빈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인다”는 바울의 말에 머리로는 동의한다는 점을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은 그분의 '특별한 보살핌'을 직접 맛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보살핌을 전혀 맛보지 못합니다. 결국 1절은 “막연한 신(神) 인정”과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구별하면서 끝납니다.

1.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동의만으로는 부족
2. 특별한 보살핌을 맛봐야 아버지 사랑을 안다
3. 막연한 신 개념 ≠ 섭리 신앙

사도행전 17:28

사람들이 머리로는 동의하는 말씀. 그러나 마음으로 맛보지 못한 은혜의 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 운명이나 우연은 없음

칼빈은 성경이 가르치는 섭리가 운명이나 우연과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든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다”고 믿어 왔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섭리 교리가 흐려지고 거의 묻혀 버렸습니다. 칼빈은 예를 듭니다. 도둑이나 맹수를 만난 일, 풍랑에 배가 부서진 일, 무너진 집이나 나무에 깔려 죽은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막에서 굶어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일, 파도에 휩쓸리다 아슬아슬하게 항구로 돌아온 일도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운'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더 깊은 원인, 곧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봅니다. 사물에도 저마다 고유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끌지 않으면 그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물은 '도구'입니다. 가장 놀라운 피조물인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태양보다 빛과 식물을 먼저 만드셔서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여호수아 때 해가 멈춘 일과 히스기야 때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일도 태양이 맹목적인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해마다 계절은 순서대로 오지만 날씨가 매년 다른 것도 하나님의 새롭고 특별한 섭리입니다.

2.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진짜 원인
3. 사물의 힘은 진짜지만 하나님의 도구다
4. 해보다 빛이 먼저: 공로는 하나님께
5. 반복되는 계절 속 다양함도 섭리다

마태복음 10:30

머리털까지 세신다: 사소한 일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출발점 (재료 OCR에는 '마 19:30'으로 찍혀 있으나 바로잡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창세기 1:3, 1:11, 1:14

빛과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됨: 태양은 원인이 아니라 도구

창세기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세기 1: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호수아 10:13

해가 멈춤: 태양의 운동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 20:11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감: 같은 논증의 두 번째 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 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 도를
물러가니라

3.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

칼빈은 하나님의 전능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합니다. 궤변가들(칼빈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주로 스콜라 신학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이 상상하는 전능은 비어 있고 거의 무의식적입니다. 성경의 전능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물을 정해진 물길에 흘려보내듯 일반 원리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주관하십니다. 시편 115:3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말씀은 분명하고 계획적인 의지를 뜻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철학자들처럼 “하나님은 모든 운동을 처음 일으킨 원인일 뿐”이라고 읽는 것은 어리석습시다. 섭리를 자연법칙 안에만 가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아주 유익한 교리를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하늘과 공기와 물의 움직임에 그냥 맡겨진 존재라면 세상에 그보다 불쌍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젖먹이가 엄마 젖을 먹는 일도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어떤 아기는 넉넉히, 어떤 아기는 적게 먹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이 교리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선을 행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그분의 보호 아래서 안심합니다. 해로운 일도,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의 뜻과 권위와 허락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피조물이 독자적으로 우리를 해칠 수 있다고 믿는 미신적인 두려움이 고쳐집니다. 칼빈은 이 경고가 모든 두려움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1. 전능은 쉬지 않고 일하는 능력이다
2. 자연법칙에만 가두면 영광을 뺏는다
3. 젖 한 방울도 하나님 손에서 온다
4. 유익 둘: 능력 확신, 보호 속 안식

시편 115:3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막연한 '최초의 원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의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8:2

젖먹이도 하나님을 찬양함: 태어나자마자 받는 개별적 돌보심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레미야 10:2

이방인처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미신적 두려움을 바로잡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4.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

칼빈은 섭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의 일을 한가하게 구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쇠를 쥐신 분으로서 모든 사건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섭리는 하나님의 '눈'(아심)만이 아니라 '손'(행하심)과도 관계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이 미래를 아신다는 뜻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지'(미리 아심)만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 전체의 운행은 지도하시지만 개별 피조물의 움직임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봅니다. 이들은 피조물은 우발적으로, 사람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움직임을 일으키실 뿐 '결정'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름뿐인 통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통치란 실제 권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은 게을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에피쿠로스 학파나, 신은 하늘 위쪽만 다스리고 아래쪽은 무덤에 맡겨둔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관점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하나를 특별히 돌보신다는 점만 인정한다면,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사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자연의 은밀한 충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만물을 붙드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반대자들은 특별 섭리를 몇몇 특별한 사건에만 한정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개별 사건까지 주관하시며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예고합니다.

1. 섭리는 구경이 아니라 열쇠 쥔 다스림
2. 미리 아는 것(예지)만이 아니다
3. '전체만 다스린다'는 생각도 받아들이 수 없다
4. 이름뿐인 통치자는 통치자가 아니다
5. 자연 질서는 인정하되 개별 돌보심 포함

창세기 22:8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섭리는 아심(눈)과 행하심(손)을 함께 포함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요한복음 5:17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도행전 17:28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인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히브리서 1:3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 그리스도의 신성과 만물 보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섭리란 하나님의 눈 못지않게 그의 손길에도 관계되는 것이다.”

특별 섭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5-7절)

5. 세상의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

칼빈은 반대 입장을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하나님은 운동을 시작만 하시고 나머지는 사물이 본성이나 우연대로 움직인다고 해 봅니다. 그러면 낮과 밤, 계절의 규칙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곡식을 말리는 폭염, 때아닌 비, 갑작스러운 우박과 폭풍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별의 위치나 자연적 원인 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나 심판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집니다. 풍년도 특별한 복이 아니고 흉년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칼빈은 근거를 다 늘어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비를 주실 때 그것이 자비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철처럼 닫으시거나 병충해와 우박을 보내실 때는 그것이 분명한 보응의 표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짐승을 기근으로 위협하기도 하십니다. 짐승의 먹이 양까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섭리를 몇몇 사건에만 한정하는 것은 유치한 생각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규칙적인 것만 하나님 일'이면 자비도 심판도 없다
2. 풍년도 흉년도 하나님의 일이다
3. 비 한 방울도 명령 없이 안 내린다

5.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레위기 26:3-4

순종하면 때를 따라 비를 주심: 비는 하나님의 자비

³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신명기 11:13-14

같은 약속의 반복 (자료 OCR '신 11:13-14'를 바로잡음)

¹³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¹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28:11

땅의 풍성함을 복으로 주심 (자료 표기 그대로)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이 하시며

레위기 26:19

하늘을 철처럼 하심: 가뭄은 하나님의 징계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신명기 28:22

병충해·깜부기: 재해도 하나님의 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사야 38:2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학개 2:17

깜부기·우박 재앙 (자료 OCR '학 2:11'을 바로잡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편 147:9

까마귀 새끼를 먹이심: 일반 섭리 찬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마태복음 10:29

참새 한 마리도: 섭리는 가장 작은 일에도 미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13:5-6

높이 계시나 스스로 낮추어 천지를 살피심

⁵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⁶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6. 인간사에 관계하는 하나님의 섭리

칼빈은 우주가 특별히 사람을 위해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다스림도 그 목적을
향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와 솔로몬은 사람의 길과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

길을 선택하는 권한이 사람 손에 있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변명하겠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능력만이 아니라 선택권과 결정권까지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교만을 꾸짖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하나님 없이 행동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성경은 가장 우연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합니다. 길가 나뭇가지가 부러져 지나가던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가 넘겼다”고 하십니다. 제비뽑기의 결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섞여 사는 것도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을 정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에게 인내를 권한다고 칼빈은 풀이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도 동서남북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 세상은 사람을 위해 지어졌다
2. 능력만 아니라 결정권도 하나님께
3. 말 한마디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
4. 사고·제비뽑기도 하나님 손 안이다
5. 빈부와 지위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예레미야 10:23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잠언 20:24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고백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16:9

계획은 사람이, 걸음은 하나님이 (칼빈은 '참조'로 제시)

여호와시니라

잠언 16:1

말의 응답도 하나님께: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교만을 꾸짖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출애굽기 21:13

고의 아닌 죽음도 “내가 넘겼다”: 사고처럼 보이는 일도 섭리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잠언 16:33

제비뽑기도 하나님이 정하심: 가장 우연해 보이는 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9:13

빈부가 섞여 살아도 모두에게 빛을 주심: 형편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가난한 자와 포박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시편 75:6-7

높이고 낮추는 이는 재판장 하나님: 지위는 노력이나 운의 결과만이 아님

⁶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⁷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7. 자연의 현상들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칼빈은 구체적인 사건들이 특별 섭리를 보여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람을 보내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실 때는 큰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반대자들은 이런 일을 “평소와 다른 예외”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바로 이 사건들로 보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바람이 불거나 세지는 일이 없다고 추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람을 사신으로 삼으신다”는 시편 말씀이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잠잠하게 하시는 것도, 곡식을 말리고 껌부기 재앙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생식 능력이 있지만, 자녀를 주시고 주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만큼 평범한 일도 없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던 양식을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하나님이 아버지의 손으로 양식을 주신다는 뜻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이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분명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1. 바람과 풍랑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2. '예외적 기적'이 평소의 섭리를 보여 준다
3.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4.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사람을 살린다
5. 일용할 양식 기도가 그 증거다

출애굽기 16:13

메추라기를 보내심: 구체적 사건 속 섭리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민수기 11:31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몰아오심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심: 풍랑도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시편 104:3-4

구름이 수레, 바람이 사신: 날씨는 하나님의 도구

³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⁴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시편 107:25

하나님이 명하시니 광풍이 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시편 107:29

하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모스 4:9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꺾부기 재앙도 하나님이 보내심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꺾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팔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13:9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을 어머니가 되게 하심 (칼빈은 '참조'로 제시)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창세기 30:2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신명기 8:3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양식의 효력도 하나님의 복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4

예수께서 같은 말씀을 인용하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 3:1

의지하던 양식을 거두심: 양식도 하나님 손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마태복음 6:11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가 먹이신다는 고백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시편 136:25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가장(家長)

시편 34:15-16

의인에게는 눈과 귀를, 악인에게는 얼굴을 향하심: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 뜻에 쓰임

¹⁵ 여호와와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데도 ¹⁶ 여호와와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데도

운명, 우연, 우발적 사건들과 섭리 (8-9절)

8. 섭리의 교리는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과는 전연 다름

섭리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이라고 비난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354-430, 히포의 주교)도 같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칼빈은 단어로 다투고 싶지 않다면서도 '운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둘입니다. 바울이 피하라고 한 헛된 말에 속하고, 반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깎아내리려고 이 말을 쓰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 안에서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필연의 사슬을 말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혜로 하실 일을 정하셨고,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늘과 땅과 생명 없는 사물뿐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의도까지 섭리 아래서 정해진 목적으로 갑니다. “그럼 우연이나 운명은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칼빈은 4세기 교부 바실리우스의 말로 답합니다. '운명'과 '우연'은 이교도의 말이니 신자는 마음에 새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복이고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운명이나 우연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재고록』에서 예전에 『아카데미 학파 반박』에서 '포르투나'(운명)라는 말을 자주 쓴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여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우연히·혹시' 같은 파생어는 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운명'이라 부르는 것도 사실은 숨은 질서의 다스림이고, '우연'이란 원인이 감추어져 있다는 뜻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할 것을 '운명'이라 부르는 나쁜 습관을 고집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나는

말도 하나님이 망대에 앉아 구경하며 허락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의 첫째이자 최고의 원인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효력을 내는 의지를 가리킵니다.

1. 섭리는 스토아 운명론과 다르다
2. 스토아: 자연 인과의 기계적 사슬
3. 칼빈: 지혜로운 하나님의 작정과 시행
4. '운명'·'우연'은 신자의 말이 아니다
5. '허락'도 방관이 아니라 실제 뜻이다

디모데전서 6:20

헛된 말을 피하라: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9. 모든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음

칼빈은 우리 마음이 섭리의 높이에 닿기 어려우니 한 가지 구분을 도입하자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우연처럼 보입니다. 운명이 마구 일을 일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의 질서와 이유와 목적과 필연성이 대부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이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예를 듭니다. 한 상인이 일행과 숲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강도 소굴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미리 보셨을 뿐 아니라 미리 정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보셨다”가 아니라 넘지 못할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의 정황을 보면 우발적이라고 여기겠지만, 그 속에서 섭리가 일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우리 눈에는 이쪽저쪽으로 열려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일은 없습니다. 전도서가 '우연히 닥치는 일'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도 첫째 원인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어리석었지만, 그들조차 재앙을 무턱대고 우연으로만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사울이 물러간 일도, 우리 눈에는 우연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로 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조건이 없어 보이고 본성상 꼭 그래야 하는 일이 아니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뼈가 그 예입니다. 그분의 몸은 우리와 같아서 뼈가 부러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본성상의 필연'과 '하나님이 정하셔서 생기는 필연'을 구분한 학자들이 무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1. 다 정해져 있어도 우리 눈엔 우연 같다
2. 원인과 목적이 하나님께 감취졌기 때문
3.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다
4. 미래가 열려 보여도 하나님은 정하셨다
5. 예수의 뼈: 부러질 수 있었으나 안 부러짐

욥기 14:5

수명의 경계를 정하심: 하나님은 미리 보실 뿐 아니라 정하신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전도서 2:14-15

지혜자와 우매자에게 같은 일이 닥침: '우연한 일'이라는 표현

¹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¹⁵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전도서 3:19

사람과 짐승에게 같은 일이 닥침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전도서 9:2-3

모두에게 같은 일 (재료 OCR '9:2궁'을 바로잡음)

²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³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9:11

시기와 우연: 원인이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사무엘상 6:9

블레셋 점쟁이: 불신자에게도 남은 희미한 섭리 감각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벰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23:26-27

블레셋 침공으로 사울이 물러감: 우연 같은 사건 속 섭리

²⁶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²⁷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요한복음 19:33

군인들이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9:36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는 성경의 성취: 하나님이 정하셔서 생긴 필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해와 반론



용어

섭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지금도 붙드시고, 모든 일을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일.

일반 섭리 / 특별 섭리

자연 질서 전체를 유지하시는 다스림 / 개별 사건과 사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다스림. 칼빈은 둘을 떼어 놓지 않는다.

예지(豫知)

'미리 아심'. 칼빈은 섭리가 미리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다스리는 일이라고

최초의 동인(動因)

모든 움직임을 맨 처음 일으킨 원인이라는 철학 개념. 칼빈은 하나님을 이 정도로만 보는 것을 거부한다.

스토아 운명론

고대 그리스·로마 스토아 학파의 생각. 자연 안의 원인과 결과가 필연적인 사슬로 이어져 모든 것이 정해진다고 본다.

에피쿠로스 학파

신들은 세상일에 관여하지 않고 한가하게 지낸다고 본 고대 철학 학파.

작정(作定)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실 일을 지혜로 정하신 것.

우발적

원인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어쩌다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것. 칼빈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뜻으로만 허용한다.

허락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지 않고 일어나게 두심. 칼빈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수동적 방관이 아닌 하나님의 실제 뜻으로 본다.

필연성의 구분

'본성상 반드시 그래야 하는 필연'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필연'을 나누는 스콜라 학자들의 구분.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손 떼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열쇠를 쥐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 섭리는 스토아 운명론과 다르다. 기계적인 사슬이 아니라 지혜롭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다.
- 모든 일이 정해져 있어도 그 원인은 감추어져 있으니,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믿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본다.
- 이 교리의 목적은 사변이 아니라 위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미신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분의 보호 속에 쉬게 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